[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세기 초반,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모방하여 가야금을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오래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고분에서 오늘날의 가야금과 같은 모양의 악기를 들고 있는 흙인형이 출토되었고, 3세기 후반 중국 진(晉)나라의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에 우리 나라 남부 지방[변진(弁辰)]에 지금의 가야금 비슷한 현악기가 존재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가실왕의 가야금 창제설, 특히 중국 악기의 모방이라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래 전부터 전해 오던 우리 악기를 가실왕이 중국 악기를 참조하여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야국의 악사인 우륵이 신라에 투항하고, 그를 통하여 가야의 음악이 신라에 정착되는 과정은 당시의 음악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기에 삼국사기의 기록을 인용해 본다.

신라의 옛 기록에 의하면,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었다. 왕이 "여러 나라의 방언이 서로 다른데 어찌 음악이 같을 수 있겠는가"? 하며 악사 우륵에게 명하여 열두 곡을 만들게 하였다.

나중에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우륵은 악기를 들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왕은 우륵을 맞아들여 국원(國原)에 살게하고, 계고·법지·만덕 세 사람으로 하여금 우륵의 음악을 전수받게 하였다. 세 사람이 그 음악을 다 배운 후 서로 의논하기를 "이 음악은 번거롭고 거칠어 아정(雅正)하지 못하다." 하고, 이를 줄여 다섯 곡으로 만들었다.

우륵이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내었으나, 다섯 곡의 음악을 다 듣고 나서는 감탄의 눈물을 흘리며 "재미있으되 저속하지 않고[樂而不流], 슬프되 비통하지 않으니〔哀而不悲〕 가히 올바른 음악이다. 그러니 왕께 나아가 연주하여라." 하였다. 왕이 음악을 듣고 크게 기뻐하자, ㉠ "가야는 망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음악을 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간언하였다. 그러자 왕은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 망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며 이 음악을 취하여 신라의 궁중 음악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는 우륵이 작곡한 열두 곡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 음악은 민요처럼 당시 가야 여러 지방의 향토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 음악이었던 것 같다.

진흥왕이 우륵을 만난 낭성(娘城)은 지금의 청주 지방인데, 왕은 그를 지금의 충주인 국원에 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라의 관리 세 사람을 선발하여 그에게서 음악을 배우도록 하였는데, 우륵은 제자들의 재능을 ㉡ 헤아려 계고에게는 가야금, 법지에게는 노래,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고 한다. 우륵은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멀리 고향 하늘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 가야금으로 향수를 달랬는데, 그 언덕이 바로 지금의 탄금대(彈琴臺)이다.

56. 글쓴이가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① 우륵이 가야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② 외국의 악기를 모방하였다는 점 때문에
③ 가야의 사실을 신라인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④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⑤ 삼국 시대의 사실을 고려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57. 이 글에 나타난 우륵의 음악관(音樂觀)은?

① 향토적인 특성이 담겨야 훌륭한 음악이다.
② 번거롭고 거친 음악은 아정한 음악이 아니다.
③ 망한 나라의 음악은 결코 훌륭한 음악이 될 수 없다.
④ 나라마다 말이 다르듯이 각 나라의 음악도 달라야 한다.
⑤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짙게 표현된 것은 바르지 못한 음악이다.

58. 이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① 가실왕의 가야금 창제설은 문헌적 근거가 있다.
② 우륵은 악(樂), 가(歌), 무(舞)에 능한 인물이었다.
③ 민요는 향토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음악이다.
④ 신라 사람들은 주술적인 목적으로 흙인형을 만들었다.
⑤ 우륵은 적성에 따른 전문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59. ㉠과 같은 형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1.2점]

① 그가 발표한 새로운 이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후진국에서 온 학자인데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이론이 뭔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② 구름은 수증기의 응결체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 수증기의 입자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③ 내가 어제 갈비를 뜯다가 이를 부러뜨릴 뻔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갈비를 먹어서는 안 돼. 잘못하면 이가 부러진다.
④ 이 과목마저 낙제를 하면 전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어머니께서 얼마나 낙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 낙제만은 면하게 해 주십시오.
⑤ 신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모두 진리이다. 그것은 신의 계시이므로.

60. ㉡의 문맥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0.8점]

① 참작하여 ② 계산하여 ③ 판단하여
④ 고려하여 ⑤ 감안하여

- 정답: 56.④ 57.⑤ 58.④ 59.① 60.②

◆ 00 수능 13~18번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종이 조선 시대의 역대 왕 중에서 제도의 정비와 문치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군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음악을 정리하여 나라의 연례(宴禮)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음악을 정리한 그의 업적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 사랑의 정신을 실천한 것과 더불어 위대한 문화 애호 정신의 발로라 할 만하다.

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음악에 정통하였다. 『세종실록』에 실린 다음의 기록은 그의 음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세종은 박연이 제작한 경(磬)* 두 틀과 중국에서 도입한 경 한 틀을 시험해 본 다음, 중국의 경은 음이 잘 맞지 않지만 박연이 만든 경은 바르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하면서, 이칙(夷則)* 하나의 소리가 약간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칙은 서양 음악에서 'G#'에 가까운 소리인데, 이처럼 반음의 미세한 높낮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보통 사람의 음악적 소양이라 하기 어렵다.

세종은 우리 나라의 음악이 모두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에 뒤질 것도 없다고 보았다. ㉠중국의 음악이라고 하여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음악을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음악을 중국의 음악과 대등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온 향악(鄕樂)보다 중국계 속악인 당악(唐樂)과 송나라에서 들어온 아악(雅樂)이 중심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우리의 음악에 대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은 세종의 음악관이 매우 주체적이고 선진적이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세종은 종묘 제례에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종묘의 제례에서 당악을 먼저 연주하고 삼헌(三獻)*에 이르러서야 우리 나라의 전통 궁중 음악인 향악을 연주하는 실정이었다. ㉡나아가 세종은 제례에서는 물론 사신을 접대하는 회례연(會禮宴)에서도 향악을 제외하고 중국계 아악만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시의 흐름이 우리의 고유한 음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새롭게 출발한 왕조에 걸맞은 음악을 제정하려 하였다. 그는 신하들에게 조상들이 평소에 듣던 음악을 제례와 회례연에 쓰는 것이 어떠할지 상의하라고 명한 바, 여기서 우리 음악에 대한 그의 주체적인 자세를 다시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세종이 중국의 음악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만을 견지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계 아악에 편성되는 악기를 새로 제조하거나 아악을 정비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국수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외래 음악의 좋은 점을 수용하려는 의도였다. 세종이 박연 등에게 조회에 사용할 아악을 정리하라고 명한 다음의 언급은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보여 준다.

내가 조회(朝會)에 사용할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창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듣지 아니하기도 한다.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또 국가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좋은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그러나 당시 음악을 정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은 중국계 아악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향악은 상대적으로 홀대하였다. 그 때 참여했던 인물 중에 "가정에서 삼현(三絃)* 가무를 가르치는 일은 실로 집안을 망치는 근원이니 삼가 그러한 뜻을 갖지 말라. ㉣금슬(琴瑟)*은 정악의 그릇으로, 예로부터 군자가 늘 곁에 두고 이것으로써 성정(性情)을 길렀으니 조용히 스스로 연주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자손에게 유훈(遺訓)을 남긴 사람이 있다는 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종이 "아악은 본래 중국의 음악인데, 그것을 제례에 사용한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다가 죽은 뒤에는 아

악 연주를 들어야 하니 옳은 일인가?"라고 한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세종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종묘 제례 음악이 중국계 아악으로 바뀜으로써, 그의 주체적인 음악 정책은 만족할 만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음악 정책과 거기에 깔려 있는 자주적인 음악 애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의 국악이 서양 음악에 밀려 합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해 준다.

* 경 : 악기의 이름
* 이칙 : 동양의 십이 음계에서 아홉째 음
* 삼헌 : 제사 때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일
* 삼현 : 거문고, 가야금, 비파
* 금슬 : 거문고와 비파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세종은 제례 음악에 향악을 주로 사용하려 하였다.
② 세종은 박연 등을 통하여 향악을 정리하려 하였다.
③ 세종은 우리 나라와 중국의 음악을 대등하게 인식하였다.
④ 세종의 음악 정책은 아악과 향악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이었다.
⑤ 세종은 미세한 음의 차이까지 구별할 정도로 음악적 소양이 있었다.

14. <보기>는 정인지가 쓴 『훈민정음』 서문의 일부이다. ㉠의 주장과 상통하지 않는 것은? [2점]

<보 기>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표기할 글자와 글이 있다. 그래서 ⓐ옛 사람이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정(情)을 통하게 하고, 삼재(하늘, 땅, 사람)의 도리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이 선인이 만든 글자를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외국어는 중국어와 다른 그 언어의 음이 있으나 그 음을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쓰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니 어찌 능히 막힘 없이 통달하겠는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각각 처해 있는 바를 따라 편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똑같게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동방은 예악, 문장 등 문물 제도가 중국과 견줄 만하나 우리말과 사투리는 중국과 같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상황 인식과 대처 방향이 ㉡과 유사한 것은? [2점]

①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 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② 현대인은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만 약다.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아름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 현명하다.
③ 날씨는 급격히 변화되어, 이 골짝 저 골짝에 안개가 자욱하고 음산한 구름장이 산허리에 감기더니, 은제(銀梯), 금제(金梯)에 다다랐을 때 기어이 비가 내렸다. 젖빛 같은 연무(煙霧)가 짙어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다.
④ 홍보 치레를 볼작시면, 철대 부러진 헌 파립, 버레줄 총총 매어 조새 갓끈을 달아 써, 며낮 떨어진 헌 망건 밥풀 관자 노당줄을 뒷통 나게 졸라매고, 떨어지 헌 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 눌러 띠고,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대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방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
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한 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16. ㉢과 잘 어울리는 것은?

① 갑론을박(甲論乙駁)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④ 천재일우(千載一遇)
⑤ 백년하청(百年河淸)

17. 세종의 음악 정책에 담긴 지향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리 문화의 세계화
② 문화적 정체성 확립
③ 민족 문화의 활성화
④ 전통 문화의 재인식
⑤ 외국 문화의 창조적 수용

18. '㉣금슬(琴瑟) : 부부의 금실이 좋다.'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① 고간(庫間) : 곳간이 비었다.
② 세월(歲月) : 세월이 빠르다.
③ 중생(衆生) : 짐승보다 못하다.
④ 내외(內外) : 서로 내외를 한다.
⑤ 우레(雨雷) : 우레 소리가 크다.

- 정답: 13.② 14.① 15.⑤ 16.④ 17.① 18.③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조에는 세종의 명을 받아 표준 음률을 정하고 아악(雅樂)을 제정하는 사업을 맡았던 박연이 황종관 제작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제시했던 해결 방안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박연이 아뢰기를,

"기장[黍]을 쌓는 법은 비록 전적(典籍)에 기재되어 있지마는 참된 기장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중략) 신이 원하옵건대, 남방의 여러 고을에서 기른 기장을 모두 가져와 세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쌓아 황종관을 만들어, 그중에 중국의 음과 서로 합하는 것이 있으면 삼분손익(三分損益)하여 12율관을 만들고, 오성(五聲)의 조화를 얻으면, 이어서 도(度)·량(量)·형(衡)도 따라서 살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국 역대의 음률 제정이 기장으로 말미암아 일정하지 않았고, 성음의 높낮이도 시대에 따라 달랐으니, 지금 중국의 음률이 참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장이 참됨을 얻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음률과 도·량·형의 제정은 곧 천자의 일이고 제후의 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만약 지금 남방의 '검은 기장[秬黍]'이 끝내 중국의 황종(黃鍾)*과 합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형편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기장을 임시로 사용해 쌓아 율관을 만들어 중국의 황종에 맞추고, 그런 연후에 법도에 따라 가감해 성률을 바로잡으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조에는 세종이 음률 제정의 고제(古制)를 탐구하던 중에 황종관 제작 사업의 방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아악은 본디 우리의 소리[聲]가 아니고 실은 중국의 소리[音]이다.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으므로 제사 때 연주함이 마땅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전에는 향악(鄕樂)을 듣고 죽어서는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 그러한가? 하물며 아악은 중국에서도 시대에 따라 만든 것이 다르고, 황종의 소리 또한 높고 낮음이 있다. 이로 보아 아악의 제도는 중국에서도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회나 하례에 모두 아악을 연주하려고 하나, 합당한 제도를 정하지 못할까 걱정이다. 황종관으로는 후기(候氣)**함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동쪽에 치우쳐 있어 춥고 더운 풍기(風氣)가 중국과 아주 다른데, 어찌 우리나라의 대나무로 황종관을 만들겠는가. 황종은 반드시 중국의 관을 사용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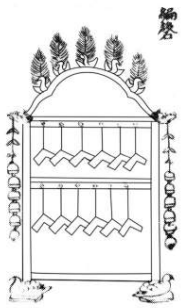
(중략) 박연이 만든 황종관은 어느 제도에 근거해 바로잡은 것인가? (중략) 지금 우리나라의 기장을 가지고 황종관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다. (중략) 봉상시에서 악을 익히는 자들이 관습도감의 사람들만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관습도감의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박연·정양은 모두가 신진 인사들이라 오로지 그들에게만 의뢰할 수 없을 것이니, 경들은 유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2년 12월 1일 조에는 「아악보(雅樂譜)」가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15년 1월 1일 조에는 아악의 제정 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관의 기록이 있다.]

을사년(세종 7년) 가을에 해주에서 검은 기장이 나고 병오년 봄에 남양에서 경석(磬石)이 산출되니, 임금께서 개연히 옛것을 개혁해 새로이 고치려는 뜻을 갖고 박연에게 편경(編磬)을 만들라 명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본래 화음이 맞는 악기가 없어서, 박연이 해주산 검은 기장을 취하여 쌓아 크기를 맞추어 옛 설에 의거해 황종관 한 개를 제작해 불어 보니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보다 약간 높았다. (중략) 우리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어 풍토 및 기후가 중국과 매우 달라 후기로 음률을 찾으려 해도 응당 증험하지 못할 것을 헤아려, 해주산 검은 기장의 모양으로 밀랍을 녹여 그것보다 약간 큰 낟알을 만들어 쌓아 황종관을 만드니, 그 형태가 우리나라의 작은 '붉은 기장[丹黍]'과 똑같았다. 곧 1알을 1푼[分]으로, 10알을 쌓아서 1치[寸]로 하는 법식으로 해서 9치를 황종관의 길이로 정하니 90푼이다. 여기에 1치를 더해서 황종척(黃鍾尺)의 길이로 정했다. (중략) 밀랍으로 만든 기장 1,200개를 관에 넣으니 진실로 남고 모자람이 없었고, 불어 보니 중국의 편종과 편경이 내는 황종음과 서로 맞았다.

(중략) 지신사 정흠지 등이 박연에게 묻기를 "형제(形制)와 성음의 법을 어디에서 취했는가?" 하니, 박연이 말하기를 "형제는 중국에서 하사해 준 편경에 의하였고, 성음은 신이 직접 만든 12율관으로 맞추어 이루었습니다." 하였다. 여러 대언(代言)들이 박연에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중국의 음을 버리고 직접 율관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하고 모두 터무니없고 망령되다 여기었다.



<세종실록의 편경>

(중략) 임금이 박연에게 명하기를, "내가 조회의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입법과 창제는 예로부터 하기가 어렵다.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혹 막고,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혹 듣지 아니하며, 비록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이 불리한 때도 있다.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하여졌고, 나라에 일이 없으니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이룩하라."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황종: 아악의 12음률 가운데 첫 번째 음.
** 후기: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천지의 기(氣)를 황종관으로 측정하는 것.

35. 위 글의 '황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황종관의 길이는 황종척으로 9치였다.
ㄴ. 황종관의 재료인 기장의 산출지는 전적에 규정되어 있었다.
ㄷ. 중국에서 받아 온 편경의 황종음에 맞추어 황종관을 만들었다.
ㄹ. 해주산 기장으로 만든 황종관과 밀랍 기장으로 만든 황종관의 음이 일치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36. 위 글의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아악의 제정에 앞서 도량형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②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로 봉상시와 관습도감이 있었다.
③ 검은 기장과 경석의 출현으로 편경 제작 의욕이 고무되었다.
④ 조정의 관료들은 박연의 독자적인 황종관 제작에 비판적이었다.
⑤ 조회 음악과 제사 음악을 아악으로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37.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나의 뜻'을 정하는 데 바탕이 되었을 생각으로 보기 <u>어려운</u> 것은?

① 조선과 중국의 풍기는 다르지만 음률의 조화는 가능하다는 자신감
② 중국의 황종관도 정확한 후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생각
③ 고제에 맞는 참된 황종음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
④ 재래의 아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 인식
⑤ 중국의 아악도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

- 정답: 35.② 36.① 37.③

◆ 05 수능 48~51번

[48 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운 우습 깊은 밤에 모진 광풍이 일어나 바람은 우루루 루루루루 쇄……."

「춘향가」 가운데 춘향이 갇혀 있는 옥방(獄房)의 광경을 묘사한 '옥중가'의 한 대목이다. 이 ⓐ 소리를 듣고 바람이 천장을 휘몰아서 마룻바닥을 스쳐 가는 음산한 옥방의 분위기가 느껴져 청중이 공감하게 되었다면, 창자(唱者)는 이 대목의 '이면'을 잘 그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다면 '이면을 그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린다'는 말은 소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창자의 음악 행위를 나타내므로, 이면은 당연히 음악 행위에 의해 구현된 그 무엇에 해당한다. 창자는 ⓑ 소리를 통해 사설의 내용인 옥방의 광경을 묘사했으니, 이면이란 사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옥방의 광경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그 음산하고 비감한 분위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까지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이면을 잘 파악한 후 성음[음색], 조[음계], 장단 등을 복잡하게 선택하고 구성하여 사설 내용을 실감 나게 ⓒ 소리해야 이면에 맞는다는 평을 들을 수 있으니, 이면에 맞게 잘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면 찾다가 소리 못한다."라는 말이 괜한 ⓓ 소리가 아니다.

사설 내용 그대로를 음악으로 표현해야만 이면을 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 음악적 표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사설 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떤 '권위'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면, 이면을 그리는 일이란 이미 고정되어 있는 해석을 음악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된다. 창자가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면 "이면에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판소리 유파나 계보의 음악적 특성을 의미하는 '제'나 '바디'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사설 내용에 대한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이면을 그린다는 말에는 창자의 주체적 해석을 허용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창자는 사설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음악적 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판소리 전승상에 없던 독창적인 창법을 의미하는 '더늠'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각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자칫 자신의 미숙한 ⓔ 소리를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사설 내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이면이란 [㉠]을/를 의미한다. 모든 판소리 창자들은 "이면을 잘 그렸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 이 말을 듣기란 쉽지 않다. 이면을 잘 그렸다는 찬사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명창(名唱)의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8.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대화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① 가람 : 질문을 던지면서 화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② 나래 : 예시를 통해서 화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지.
③ 다희 : 한편,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어.
④ 하늘 : 그 과정에서 각각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고 있군.
⑤ 아영 : 전체적으로는 화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49.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창자가 가장 즐겨 부르는 판소리
② 창자가 소리로 표현해 내고자 하는 바탕
③ 창자가 최고의 경지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목소리
④ 창자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판소리의 한 대목
⑤ 창자가 부르는 판소리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대목

50.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② 독창적 창법을 개발하려는 창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③ 분위기까지 음악적으로 표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④ 창자가 사설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사설 내용에 음악적 표현을 그대로 들어맞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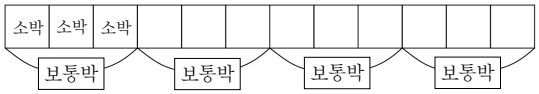
51. ⓐ ⓔ 중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 48.⑤ 49.② 50.② 51.④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악의 장단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로 소리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며, 기본 단위인 '박'으로 구성된다. 박은 음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기준이 되는 박을 보통박이라 하고 보통박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갠 박을 소박이라 한다. 여러 개의 소박이 모여서 하나의 보통박을 이루며, 우리 민요 장단은 굿거리장단처럼 3개의 소박으로 이루어진 보통박이 4번 나타나는 3소박 4보통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간보에 나타낼 때는 <그림 1>과 같이 12정간(칸)이 필요하다.



<그림 1>

국악 연주에서 장단을 맡는 대표적인 악기는 장구로, 장단을 맞추기 위해 장구의 가죽 면을 치는 것을 '점(點)'이라 한다. <그림 2>는 굿거리장단의 기본 장구 장단을 나타낸 것으로 장구 장단을 정간보에 기보할 때는 각각의 점에 해당하는 부호를 사용하며,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특징적인 소리를 입으로 흉내 낸 구음을 부호 아래에 첨가하기도 한다.

⏀		¡	○	⋮		○		¡	○	⋮	
덩		기덕	쿵	더러러리		쿵		기덕	쿵	더러러리	

<그림 2>

㉠ 장구 장단을 칠 때는 한 손으로 채를 잡아 채편을 치고 다른 손으로는 북편을 치는데, 장구의 채편과 북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덩'이라 하고 정간보에 '⏀'로 표시한다. 이는 합장단이라고도 하며 주로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한다. 채편을 한 번 치는 것을 '덕'이라 하고 'ㅣ'로 표시하며, 채편을 칠 때 짧은 꾸밈음을 붙여 치는 것을 '기덕'이라고 하고 '¡'로 표시한다. '기덕'은 채편을 겹쳐 친다고 하여 겹채라고도 한다. 채의 탄력을 이용하여 채를 굴리며 채편을 칠 때는 '더러러리'라고 하고 '⋮'로 표시한다. '덕', '기덕', '더러러리'에서는 북편을 치지 않고 채편만 치며, 장구의 북편만 칠 때는 '쿵'이라 하고 '○'로 표시한다.

또한 정간보에는 점의 길이도 나타낼 수 있다.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으면 그 점은 한 소박이 되고, 한 정간에 점을 나타내는 부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정간이 빈 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점은 두 소박이 되는 식이다. 비어 있는 정간은 앞의 소리를 연장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첫 번째 보통박의 '덩'은 두 소박, '기덕'은 한 소박이 된다. 또한 장단을 칠 때는 기본이 되는 장단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악곡의 흐름이나 연주자의 해석에 따른 변주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주자에 따라 '기덕'을 '덕'으로 바꾸거나 '쿵더러러러'를 '쿵덕쿵'으로 바꾸어 변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주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에 변화를 주어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한편 실외음악이나 사물놀이처럼 큰 소리를 내야 할 때에는 북편을 손 대신 궁채로 치기도 한다. 또한 채편을 칠 때는 채편 가죽의 중앙 부분인 복판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창 또는 독주의 반주나 실내악 연주처럼 소리를 작게 내어야 할 경우에는 가죽의 가장자리 부분인 변죽을 친다. 변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나는 반면, 복판은 크고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 상황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도록 치는 것이다.

장단은 단지 음악의 진행을 시간적으로 안배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자나 창자의 호흡을 조절하며 음악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따라서 국악을 깊이 있게 감상하려면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 음악에 담긴 흥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4.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국악에서 장단의 개념은 무엇일까?
② 장단을 구성하는 단위는 무엇일까?
③ 정간보에 점의 강약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④ 장단을 변주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⑤ 국악 감상에서 장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2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간보를 보면 연주할 점의 길이를 알 수 있다.
② 크고 낮은 소리를 내기 위해 채편의 변죽을 친다.
③ 여러 개의 보통박을 쳐서 하나의 소박을 연주한다.
④ 북편을 치는 도구는 기본이 되는 장단에 의해 결정된다.
⑤ 기본이 되는 장단을 연주할 때에는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칠 수 없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창작 장단을 연주한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학생 :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창작 장단을 만들어 연주해 볼까? 3소박 4보통박으로 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우선은 정간보에 부호와 구음을 표시하고 그대로 연주해 봐야지.

⏀		¡	○	ㅣ		○	⋮	○	ㅣ		¡
덩		기덕	쿵	덕		쿵	더러러리	쿵	덕		기덕

① '¡(덕)'은 각각 두 소박으로 연주해야겠군.
② 마지막 보통박에서는 채편만 치면 되겠군.
③ 합장단으로 시작하고 겹채로 마무리해야겠군.
④ 세 번째 보통박에서는 종류가 다른 세 점을 연주해야겠군.
⑤ 첫 번째와 마지막 보통박의 세 번째 소박에서는 '¡(기덕)'을 쳐야겠군.

- 정답: 24.③ 25.① 26.④

◆ 06-9평 57~60번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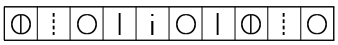
오늘날 불리는 가곡의 종류는 모두 41곡으로 남자가 부르는 남창(男唱)에 26곡, 여자가 부르는 여창(女唱)에 15곡이 있다. 그러나 그 레퍼토리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時調詩)를 ⓐ 얹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삭대엽(初數大葉)'이라는 곡이 있다면, 그것의 선율에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가사를 얹어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와 유사하다.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맨 첫 곡인 '초삭대엽'부터 끝 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부르는 연창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연창의 무대를 ⓑ 접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에 가곡을 한두 곡 정도 끼워 넣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곡의 장단에는 16박(拍)과 10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복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박과 10박 모두 10점(點)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점 16박', '10점 10박' 등으로 일컫는다. 1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打點)이 10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박과 10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 쿵(○), 덕(｜), 기덕(¡), 더러러러(⋮) 등이 10번 들어 간다는 말이다.

10점 16박 장단의 보기 (1칸 20~40 빠르기)

10점 10박 장단의 보기 (1칸 75~80 빠르기)



위의 그림에서 10점 16박의 빠르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칸이 서양 음악의 빠르기를 기준해서 20~40이다. 음악의 빠르기는 특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요되고, 30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 보통 빠르기가 90~110 정도인 서양 음악과 비교하면 가곡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실제 가곡을 들어 보면, 그 가사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처럼 가곡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데는 노래 가사에 한문구(漢文句)가 종종 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모음 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아'는 '아으'로, '에'는 '어으이' 등으로 발음한다. '청석령'이라는 노래 가사는 '청서——흐—억려———ㅇ'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좇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가곡이 성행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곡이란 명칭도 가사를 노래한다기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 인내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곡인 '초삭대엽'을 한번 끝까지 감상해 보라. 곡의 중반부를 ⓓ지나기도 전에 시시콜콜한 일상의 잡념들은 사라지고, 해질녘의 고즈넉한 평온이 조용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곡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 감흥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57.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음악 속에 담긴 선인들의 여유
② 소재로 살펴본 시조와 가곡의 관계
③ 우리 가곡에 끼친 서양 음악의 영향
④ 장단과 가창 방식으로 본 가곡의 특징
⑤ 자유로운 변주가 가능한 우리 음악의 속성

58. 위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장단과 연주 시간을 나타내면? [1점]

<보 기>

(1칸 60 빠르기)

	장단	연주 시간
①	3점 3박	3초
②	3점 3박	4초
③	3점 5박	4초
④	3점 5박	5초
⑤	5점 3박	5초

59.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곡은 동일한 노래에 가사만 바꿔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많구나.
② 가곡을 한두 번 듣게 되면 가사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
③ 가곡은 가사가 시조시인 것으로 봐서 식자층이 많이 향유했었겠구나.
④ 성격이 급한 사람이 가곡을 들으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겠구나.
⑤ 현대인은 가곡이 연창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겠구나.

60. ⓐ~ⓔ를 대체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붙여
② ⓑ: 만나기
③ ⓒ: 더디다
④ ⓓ: 넘어가기
⑤ ⓔ: 잠겨

- 정답: 57.④ 58.④ 59.② 60.③

◆ 02 수능 47~51번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 예술의 현대화나 민족 예술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물놀이를 모범 사례로 든다. 전통의 풍물놀이[농악]를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예술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우리 전통 음악의 신명을 세계에 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물놀이의 예술적 정체성 및 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나) 사물놀이의 옹호자들은 사물놀이가 풍물이나 무악(巫樂)과 같은 전통 음악의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음을 강조한다. 기본 장단의 구성이나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되는 점층적 가속(加速)의 구성 등을 이어받는 한편, ⓑ'치고 달고 맺고 푸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극적 변화를 통하여 미적 감흥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이다. ㉠징·꽹과리의 쇳소리와 북·장구가 내는 가죽 소리의 절묘한 어울림을 통해 '음양(陰陽) 조화의 원리'를 구현했다고도 한다. 사물(四物)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 결과이고 '음악'에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다.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에서 벗어나 무대에서의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현대적인 공연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놀이는 무대 공연물 관람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신은 ⓓ사물놀이와 현대 음악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국내 피아니스트 및 대중 가수, 교향악단과의 협연은 물론 국외 음악인들과의 거듭된 협연을 통해 사물놀이는 그 음악성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물놀이와 협연했던 세계적인 재즈 그룹의 한 연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함과 통일성을 갖춘 사물놀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클래식만을 고귀하게 여기는 유럽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느꼈다.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의 만남을 통해 나는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많은 깨우침을 얻는다."

(다) 그러나 문화계 일각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 풍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의 굿 정신을 잃었거나 또는 잃어 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풍물놀이는 흔히 '풍물굿'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두가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춤·기예(技藝)와 더불어 신명 나는 소리를 펼쳐 내는 것이 본질적 특성인데, 사물놀이는 리듬악이라는 좁은 세계에 안착함으로써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사물놀이에 의해 풍물놀이가 대체되는 흐름은 우리 민족 예술의 정체성 위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물놀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하지 못한 채 ㉡타성에 젖어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많은 사물놀이 패가 새로 생겨났지만, 사물놀이의 창안자들이 애초에 이룩한 음악 어법이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 예술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놀이가 민족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자들은 혹시라도 사물놀이가 대중의 일시적인 기호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47.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1.8점]

①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비하여 역사가 짧다.
②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그 음악적 뿌리가 같다.
③ 사물놀이는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과 협연하였다.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한다.
⑤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48. (나)의 '사물놀이의 옹호자'가 (다)의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박할 때의 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② 현대는 종합 예술의 시대다.
③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④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⑤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49. ㉠의 '음양 조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서양 음악과의 만남을 적극 시도해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봐.
②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각기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어.
③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절충한 새로운 공연물을 만들어서 둘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겠어.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의 성과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나아가야 해.
⑤ 사물놀이는 '마당'으로 돌아와 풍물놀이처럼 대동적 신명을 살려내야 해.

50.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타성이 붙고 ② 타성에 물들고
③ 타성이 생기고 ④ 타성에 스며들고
⑤ 타성에 빠져 들고

51. 〈보기〉는 '사물놀이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보 기>

피아노(기본 모티프)
↓
피아노(기본 모티프) + 사물(굿거리장단) : 부드러운 대화
↓
피아노(빠른 변주) + 사물(자진모리장단. 치고 달고 맺고 풀고, 반복)
↓
피아노(장엄하고 무거운 변주)
↓
사물(자진모리→휘모리장단. 치고 달고 맺고 풀고, 격렬히 반복)
↓
피아노(매우 빠른 변주) + 사물(휘모리장단) : 열정적 대화

① ⓐ ② ⓑ ③ ⓒ ④ ⓓ ⑤ ⓔ

- 정답: 47.⑤ 48.② 49.② 50.④ 51.③